
2016 프랑스 진출전략

2015. 11

kotra

파리 무역관

목 차

| | |
|--------------------------------|----|
|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1 |
| 1. 기업 감세 및 경제개혁법 시행 | 1 |
| 2.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 1 |
| II. 진출환경 분석 | 5 |
|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5 |
| 2. 경제 환경 | 5 |
| 3. 산업 환경 | 6 |
| 4. 정책·규제 환경 | 7 |
|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8 |
| III. 시장 분석 | 9 |
| 1. 수출 | 9 |
| 2. 투자진출 | 10 |
| IV. 시장진출전략 | 13 |
| 1. 진출전략 개관 | 13 |
| 2. 세부 진출전략 | 14 |
| 첨부. | |
| 1. 수출 유망 품목 | 16 |
| 2.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18 |

기업 감세 정책 및 경제 활성화 개혁법의 시행으로 고용증대 및 경제성장의 고리를 맺을 것으로 전망, 또한 2016년은 한-불 수교 130주년으로 양국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되며 문화, 과학, 예술, 시청각 등 많은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강화 예상.

1.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 양국의 동반자 관계 강화

○ 문화의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문화, 과학 및 기술 협력의 강화

- 대학, 과학 및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및 시청각 분야에서의 교류

*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상호 교류 행사인 '프랑스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프랑스' 개최

<프랑스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프랑스 교류 행사 개최 기간>

○ 2015년 9월 - 2016년 3월: 프랑스 속의 한국

○ 2016년 4월 - 2016년 12월: 한국 속의 프랑스

2. 기업 감세 및 경제개혁법 시행

□ 고용증대 위한 기업 감세 3개년 정책(2015년 - 2017년)

○ 법정최저임금(SMIC)의 1.6배 - 3.5배 월급 대상 사회보장세 감세

- 2,332유로 - 5,101.32유로의 월급에 대한 사회보장세 45억 유로 감세

○ 법인세 감세

- 사회연대세(C3S) 10억 유로 및 법인세 중과세 26억 유로 감세

* 20만 명의 고용 증가 등으로 실업률 10.4%에서 9.7%로 감소 전망

<연대책임협약(Pacte de responsabilite et de solidarite)>

(단위: 십억 유로)

| 감세 내용 | 2015 | 2016 | 2017 | 계 |
|----------------------------|-------|-------|-------|-------|
| 총 감세 금액 | 6.5 | 8.1 | 5.7 | 20.3 |
| 근로비(사회보장세) 경감 | 5.5 | 4.5 | (-) | 10.0 |
| (법정최저임금의 1.6배까지) | (4.5) | (-) | (-) | (4.5) |
| (법정최저임금의 1.6배 ~3.5배) | (-) | 4.5 | (-) | (4.5) |
| (독립 자영업자) | (1.0) | (-) | (-) | (1.0) |
| 법인세 인하 | 1.0 | 3.6 | 5.7 | 10.3 |
| (사회연대세 C3S) | (1.0) | (1.0) | (4.2) | (6.2) |
| (법인세 중세 Surtaxes sur IS:) | (-) | (2.6) | (-) | (2.6) |
| (법인세율 인하: 33.3% → 32%) | (-) | (-) | (1.5) | (1.5) |

- 경제개혁법 시행을 통해 내수, 고용 및 관광수입, 부채상환 등 경제활성화 전망
 - 일요일 및 야간 노동법 완화 : 일요일 매장 영업일수 연 5일에서 12일로 상향 조정
 - 시외버스 운수업 자유화 : 저렴한 버스 운임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구매력 제고
 - 특수직업의 자유화 : 집달리, 공중인, 경매인 등 특혜 받는 직업 시장의 자유화
 - 정부자산 매각 : 100억 유로의 정부자산 매각으로 부채상환 및 경제 활성화 자금 마련
 - 제반 행정 간소화 : 부정 및 불법노동 방지 위해 건설 분야의 직업카드 등 행정 간소화

2016년 주요 일정

-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 프랑스 속의 한국 : 2015년 9월 - 2016년 3월
 - 한국 속의 프랑스 : 2016년 4월 - 2016년 12월
- 무역협정
 - EU-캐나다 CETA 금년 말까지 EU회원국 비준 후 2016년 발효
 - EU-베트남 FTA 협상타결: 내년 유럽의회 및 회원국 비준, '17년 말 발효
- 기업 감세정책(2년차) 추진 및 경제개혁법 시행
 - 일요일 노동법 등 경제성장 걸림돌 완화 위한 경제개혁법: 2016년에 111개 시행령 중 75%를 발표할 계획인 바, 2016년 경제개혁법 시행으로 경제활성화 기대
- 서방의 이란 핵협상
 - 주요 국가별 이란 제재 완화 예상 시점: 이란은 2016년 초, 독일 2016년 1월 이후, 프랑스 2016년 1분기 경, 미국 2016년 5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음.

II

진출환경 분석

프랑스는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자동차, 원자력 산업 강국으로 문화 협력과 더불어 산업 및 기술 협력에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특성

-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 부문에서도 강국인 프랑스
 - 프랑스는 한국시장에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이 상징하는 문화·예술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산업 및 경제 분야 강국의 이미지는 미미한 상태
 - 프랑스는 GDP 기준 세계 5위, EU 2대 경제 대국으로 6,600만 인구의 대규모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교역 6위의 무역 강국
 - 항공우주, 원자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프랑스는 세계 1-2위를 다투는 우수 기업 다수 보유,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 확고

□ 전략적 가치

- 자동차, 항공우주, IT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 요구
 - 한국의 우수한 IT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자동차, e-Health, 로봇,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산업 분야 교류 및 협력 요구
 - 2015년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Airbus Helicopters) 군용 및 민간 헬기 개발 및 생산 계약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항공우주분야의 기술 및 산업협력 강화 예상

2. 경제 환경

□ 2016년 프랑스 경제성장 전망

- 국내외 경제여건 호전으로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상승할 전망
 -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는 기업투자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GDP 성장률 역시 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투자 회복 전망 요인으로는 2014년 중순부터 지속된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쟁력 및 고용 향상을 위한 세액공제법(CICE) 시행 및 세금감면 정책 확대에 의한 기업 순이익 증가로 분석됨.

- 실업률 및 공공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가계소비 증가율은 올해와 유사할 전망
 - 2016년에는 프랑스 내 상업 직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저축률이 미미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계소비 증가율 역시 올해와 비슷한 1.6% 정도로 예상됨.
 -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는 실업률 또한 일부 감소하여 2015년 전망치인 10.4%보다 0.6%포인트 감소한 9.8%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프랑스 정부의 공공지출 절약효과(공공투자 2.6% 감소 예상)로 재정 적자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며 정부지출 역시 0.9%로 미미한 증가 예상됨.

3. 산업 환경

□ 원자력 산업

- 세계 제2의 원자력 강국,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산업
 -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원자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 다만 프랑수와 올란드 정부는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전기 생산 비중을 75%에서 50%로 감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 프랑스 원자력 기업들은 영국의 원전 건설 수주를 비롯하여 브라질, 터키 및 중국 등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전략적 기술 및 산업 제휴를 서두르고 있으며 최근 Niger 우라늄 광산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한 협상입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몽고 정부와 우라늄 개발 협약을 체결함.

□ 항공우주산업

- 프랑스 제1의 수출 산업으로 약 368억 유로의 시장 규모 차지
 - 프랑스 항공 산업은 경제적 중요성과 파급영향력이라는 2개 특성을 가진 전략 산업으로 주요 기업으로는 에어버스(Airbus), 알스톰(Alstom) 등이 있음.
- 항공기 및 우주선 수주 증가로 호황
 - 항공기 생산은 수주 및 인도 상태가 양호한 관계로 2013년 3% 증가
 - 우주장비 및 비즈니스용 항공기는 판매 호조에 따라 2% 증가할 전망이다.
 - * 비즈니스용 항공기 산업은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수요 증가로 호조가 예상되며 우주선 산업은 지속적인 수주 증가(아리안 우주선 38대 등 총 52대 수주)로 성장세 보이고 있음.
- 기술이전 및 부품 공급 협력이 활발함에 따라 한-불 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기대
 - 프랑스 항공 산업이 호황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 기업의 對프랑스 기자재 및 부품 수출 증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산업

- 세계 7위 및 유럽 2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동차 산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큰 편
 -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전 세계 총 생산량은 2014년 약 568만대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디젤차 폐차 지원정책으로 CO₂ 배출량 적은 친환경 차량 우대하고 있어 전기차 판매량 또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 우리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 기대
 - 프랑스와 유럽의 완성차 및 부품 시장은 지속적인 감소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우리기업에게는 OEM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것임.
 - 프랑스의 한국 승용차 보유량이 매년 약 6만대씩 증가함에 따라 AS용 부품 수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정책 · 규제 환경

□ 파리시 대기오염 방지 추진 정책

- 친환경 차량을 우대하는 파리 시내 차량 통행 규제 계획 발표
 - 2015년 7월부터 2001년 10월 이전에 등록된 관광버스 및 화물차를, 2016년 7월부터는 1997년 1월 이전에 등록된 승용차 및 경화물차와 2000년 6월 이전에 등록된 2륜 차량의 파리 시내 주중 통행금지
- 대중교통 이용 증가 및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 전망
 - 동 정책 시행으로 신차로 대체하는 비중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
 -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 예상 및 Euro 5 규격에 미달되는 중고차 시장 퇴출 및 대체 수요 증가 전망

5. 한국과의 경제교류동향

□ 한-프랑스 교역규모

- 한-프랑스 교역규모는 '13년 9,501백만 불에서 '14년 9,462백만 불로 0.4% 감소

하였으나 '15년 상반기 기준 4,797백만 불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

<한-프랑스 교역규모>

| 대프랑스의 교역순위 (2014년 기준)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29위 | 9,462 | 9,501 | 7,523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통계

□ 교역 특징

-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특정 품목의 수출증감이 전체 교역규모를 왜곡
 - 역대 우리나라의 對프랑스 수출 최대실적을 기록한 2011년의 경우 선박(26.6억불) 및 제트유(5.9억불) 등 2개 품목이 총 수출의 57% 점유
 - 2014년에는 제트유(3.2억불 감소), 선박(2.5천불 감소), 무선전화기(2.5억불 감소), 승용차(1.5억불 감소) 등 4개 품목의 수출감소로 對프랑스 수출 8.5억불 감소

- 한국의 對프랑스 10대 수출품목 비중 감소
 - 한국의 對프랑스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70.3%에서 '14년 58.7%로 감소
 - * 對프랑스 10대 수출품목 : 선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축전지, 합성수지, 의약품, 어육, 무선전화기, 편직물
 - 감소 주원인은 수출이 증가한 선박, 축전지, 합성수지, 의약품, 어육보다 승용차, 무선전화기, 편직물 수출 감소폭이 큰 것에 기인한 것임.

- 한국의 對프랑스 10대 수입품목 비중 증가
 - 한국의 對프랑스 10대 수입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7%에서 '14년 46.4%로 지속 증가
 - * 對프랑스 10대 수입품목 : 항공기, 화장품, 의약품, 펌프, 집적회로반도체, 기타섬유제품, 가죽제가방, 승용차, 기타화학공업제품, 원동기
 - 증가 주요인은 항공기, 집적회로 반도체, 가죽제가방, 기타화학공업제품 등의 수입증가로 나타남.

III

시장 분석

전통적인 수출주요품목(자동차, 무선전화기 등)의 해외생산 증대 및 중국산 저가품 진출로 對프랑스 수출비중 감소하는 반면, 친환경, 의료장비 현대화 등의 정책으로 식품, 의료기기, 축전지 등이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음.

1. 수출

□ 프랑스의 對한국 수입동향

- 전통적인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 비중 감소
 - 프랑스의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인 자동차, 무선전화기, 가전 및 전자제품의 해외생산 증대로 한국의 수입비중 감소
 - * 2014년, 주요 수입품목인 자동차 수입은 전년대비 17.14%, 무선전화기 41.5% 감소
 - 특히, 무선전화기의 경우 불경기 지속에 따른 저가품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제품의 프랑스 진출로 한국 상품 점유율 하락
- 항공, 자동차 등 관련 분야 경기호조에 따른 부품 및 반자재 수요 증가로 관련 품목의 對한국 수입 증가
 - 유럽연합의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전기차 보급지원 증가에 따라 축전지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한국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우수성으로 경쟁력 강화
 - * 축전지(HS Code 8507) '14년 對프랑스 수출액 126백만 불, 전년대비 65% 증가(한국무역협회통계)
 - 기술이전 및 부품공급 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격경쟁력 및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對프랑스 수출 증가

□ 한-불 교역현황

- 2014년 한-불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0.4% 감소, 2015년 6월 기준 2.2% 증가
 - 한-불 교역규모는 2014년 9,461백만 달러로 0.4% 감소했으며 2015년 상반기 기준, 4,79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
 - 對불 수출 규모는 2014년 2,639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4.3% 감소, 2015년 상반기 기준, 1,35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

- 對불 수입 규모는 2014년 6,823백만 달러로 13.5% 증가, 2015년 상반기 기준, 3,45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
-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4년 4,184백만 달러로 최대 기록 경신, 2015년 상반기 기준,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11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

<한-불 교역관계>

| | |
|---------------------------------------|--|
| <p>한-불 교역규모</p> | <p>2013년 교역: 9,501백만 달러(26.3% ↑) 수출: 3,488백만 달러(34.2% ↑), 수입: 6,013백만 달러(22.1% ↑) 2014년 교역: 94억 61백만 달러(0.4% ↓) 수출: 2,639백만 달러(24.3% ↓), 수입: 6,823백만 달러(13.5% ↑) 2015년 1-6월 교역: 4,797백만 달러(1.0% ↑) 수출: 1,341백만 달러(17.4% ↓), 수입: 3,456백만 달러(10.5% ↑)</p> |
| <p>한-불 주요 교역품목 (2015년 상반기)</p> | <p>[15대 수출품목] 선박, 승용차, 축전지,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무선전화기, 편직물, 프레스 금형, 의약품, 어육, 타이어, 실리콘 웨이퍼, 집적회로반도체, 원동기\</p> <p>[15대 수입품목] 항공기, 화장품, 의약품, 집적회로반도체, 기타섬유제품, 펌프, 귀금속 장신품, 원동기, 가죽제가방, 승용차, 밸브, 기타정밀화학원료, 계측기, 자동차부품</p>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수출성공사례

- 중국산에 비해 불리한 가격경쟁력을 품질로 만회하여 약 10만 달러 첫 수출 성공
 - S사는 광천 김을 생산하는 식품가공업체로 유럽시장에 첫 진출, 특히 프랑스로의 진출이 향후 인근 유럽국가 진출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파악하여 프랑스 진출을 결정함.
 - 주요 성공요인은, 프랑스 식품 시장 내에서 가격경쟁력 면에서 중국산 제품이 우위를 차지하지만 인체유해물질 함유 우려로 인해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더 선호하고 있어 한국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내세워 마케팅 추진함.
 - 이와 더불어, 한-EU FTA 체결 이후 수출품목이 무관세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 관세 면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어 바이어와의 가격협상 시 유리하게 적용됨.

2. 투자진출

□ 최근 투자진출동향

- 핵심 외국인 투자분야인 R&D 부문 투자유치를 위한 세액 공제 제도 시행
 -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Business France)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R&D 분야에

서 해외 기업은 약 3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프랑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연구 개발 감세혜택(Crédit Impôt Recherche)을 적용하여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R&D 부문 외국인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고용증대 및 경제회복 가속화 위한 기업투자 감세 정책 발표
 - 마누엘 발스(Manuel Vals) 프랑스 총리는 2015년 4월 15일, 경제회복 가속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향후 1년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정책발표
 - 2015년 4월 15일부터 2016년 4월 15일 1년 기간 중 투자한 기업에 대해 투자비의 40%까지 법인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정책으로 기업 사정에 따라 감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기업들도 향후 법인세 부과 시에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

□ 우리기업 투자진출 동향

-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 현황
 -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에 따르면, 2014년 한국 기업의 對불 직접투자실적은 10건에 148명 고용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0%, 270% 대폭 증가
 - 이는, 2014년 프랑스의 직접투자유입 실적의 1%(고용 0.6%)에 해당하며 건수 면에서 한국은 16위 기록
 - * 한국의 對프랑스 직접투자 건수는 한국의 對유럽 직접투자 총 건수의 22%로 1위 차지
 - 2014년 주요 투자유치사례는 현대백화점그룹이 파리에 설립한 컨셉 매장 'Tom Greyhound' 및 SPC그룹의 파리 제과점 설립 총 2건임.
 - 2014년 기준 투자건수 및 실적 기준 전자제품 및 에너지·재활용 분야가 각각 2건, 20%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기준으로는 선박 분야가 70명, 약 48%로 가장 많이 차지

□ 투자진출 진입장벽

- 점차 개선되고 있는 외국인 체류증 발급 절차
 - 프랑스 해외 진출 시 외국인 체류증 발급에 대한 애로사항은 꾸준히 접수, 프랑스 정부의 단기 및 장기 비자 발급 절차 완화로 이전보다는 체류증 발급이 수월해짐.
 - 다만, 주재원의 체류증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지만 주재원 배우자에게는 여전히 1년 유효한 체류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주재원을 제외한 가족의 경우 여전히 체류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5년 7월, 프랑스 정부는 외국인 체류증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 및 유능한 외국인 인재 유치에 대해 체류증 개정안 추진 중임.
- * 프랑스 정부는 고급 외국인 인력유치를 위해 전문인력에 한하여 재능 및 역량 체류증 (Carte compétence et talents)을 전면 개정하여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4년 유효 체류증 발급 및 해당직종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사례

○ 한-프랑스 기업 M&A 사례

- 자동 번역 솔루션을 개발하는 국내 벤처기업 C 사는 2014년 5월 말, 자동번역 글로벌 1위 기업인 프랑스 S 사를 인수함.
- 양사는 2013년 초부터 삼성 갤럭시폰에 탑재할 S번역기 개발을 위해 제휴하고 있었으며 신규시장 개척의지가 강했던 국내 C사와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장악한 자동번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프랑스 S사는 신뢰를 구축, M&A 협상 추진함.
- 양사의 외국어 번역서비스 공동개발로 외국어 번역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언어 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고 이를 통해 다국어 소통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울러, 글로벌 1위 기업과의 M&A를 통해 전 세계 자동번역 솔루션 개발 강화로 다양한 산업들과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여러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신규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IV

시장진출전략

한국의 창조경제와 프랑스의 신산업 육성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항공우주, 자동차, 의료산업 등) 타겟 마케팅 및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강화노력 필요

1. 진출전략 개관

<프랑스 SWOT 분석>

| | |
|--|---|
| <p><Strength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한 혁신역량 및 뛰어난 연구개발력 ○ 항공우주, 제약, 화학 등 고부가 가치산업에서 세계적인 리더 ○ 유럽 및 북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요충지 | <p><Opportun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바이오 및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 대규모 공공연구소, 혁신클러스터 집합 ○ 프랑스 경제 회복세 진입 전망 |
| <p><Weaknes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부족 및 불안정한 중소기업구조 ○ 높은 유럽시장 의존도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투자 감소 | <p><Threa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경쟁국(중국, 인도, 러시아 등) 등장 ○ 가격경쟁력 및 영업이익에 부담을 주는 유럽산업의 쇠퇴 전망 ○ 1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
|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우주, 의약품, 자동차 등 중점산업 타겟마케팅 강화 ○ 프랑스 기업들의 글로벌 소싱 협력정책을 이용하여 국내 우수한 자동차 및 항공 부품기업 진출 기회 확대 기대 ○ 한불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산업협력 모색 | |

전략적 진출노력 강화할 산업분야 선정

- 프랑스 경쟁력 확보분야 + 우리기업의 기술력 강점분야로 장기적 미래 먹거리 창출산업에 집중
- 대상산업 : 항공우주산업, 자동차산업, 의료바이오산업

2. 세부 진출전략

2-1. 신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한 자동차, 항공우주 및 의료시장 진출

□ 프랑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건강·디지털 및 운송산업 집중 육성 계획 발표

- 프랑스 산업서비스 경쟁력 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에너지·건강·디지털 및 운송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미래산업 육성안 발표('13년 9월)
 -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의학기술 및 디지털 병원, e교육·로봇 및 빅데이터, 친환경자동차·전기비행기 및 미래형 초고속열차 등이 주요산업으로 선정
- 프랑스 미래육성산업과 경쟁력 있는 우리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13년 한-프 양국 정상회담 시 중소·중견기업 대상 '한불공동기술개발사업' 시범추진합의를 통한 양국간 유기적인 기술협력체제 구축 발판 마련
 - * 주요 협력분야는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로봇·자동차·기계, 소재·나노, 정보통신분야로 합의

□ 우리기업의 선진국 시장형 기술제품(부품) 품질 경쟁력 제고

- 프랑스 미래육성산업분야 중 우리기업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자동차, 항공부품, 바이오, 디지털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 모색 가능
- 프랑스 중점산업(자동차, 항공우주 등)에 대한 부품 및 반자재 수요 증가
 - 항공기부품, 축전지, 자동차부품 등 관련 분야 프랑스 기업의 글로벌 소싱 협력 강화로 국내 관련업체 품질 제고 및 프랑스 진출 강화

2-2. 디지털산업육성을 위한 프렌치테크 정책을 활용한 스타트업 진출

□ 프랑스, 디지털 및 혁신기업 양성을 위한 프렌치테크 정책 발표

- 프랑스 디지털 산업 촉진을 위해 스타트업 해외 우수인재 및 투자자 유치
 - 프렌치테크 정책은 프랑스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으로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분야 기업 및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2억 유로 투자, 해외 스타트업 인재 유치를 위해 1,500만 유로 지원 계획
 - 특히, 프랑스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외국인 스타트업 인재유치를 위해 프렌치

테크 티켓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년간 프랑스 체류비자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예정

* 프렌치테크 티켓은 유망한 혁신기술을 갖고 있는 프랑스 및 외국 스타트업 인재들을 선발하여 체류비자, 보조금, 인큐베이터 시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프랑스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타겟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 기회 모색 필요

- 디지털 분야 외국스타트업 유치정책을 통한 국내 스타트업 진출 가능
 -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산업육성 일환으로 디지털, 메디테크(Meditech), 바이오테크(Biotech), 핀테크(Fintech) 등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외국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 예정
 - 한-프 기술인재 교류,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 등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의 프랑스 진출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

| | | | | |
|---------|-----------------|---|-------------------|-----------|
| 품목 1 | HS Code | 880330 | 수입 관세율(%) | 0 |
| | 수입액('14/US\$백만) | 12,585 | 대한수입액('14/US\$백만) | 53 |
| 항공기부품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위험 및 부품비용 절감을 위한 공급선 다양화 ○한국산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현지 인지도가 상승하는 추세 | | |
| | 시장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는 에어버스, 사프란 등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다수 보유, 시장규모는 '14년 기준 약 507억 유로 ○동 산업은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육성산업으로 산업 클러스터, 산학연 공동연구 등의 기술개발 및 스타트업 기업 육성 등 지속발전하고 있음. | | |
| | 경쟁동향 | ○최근 중국, 동유럽(폴란드, 체코) 등의 프랑스 수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 |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이전 및 부품공급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양국 중소기업간 새로운 파트너십 발굴 가능 ○합성소재 생산업체 등 역량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對 프랑스 진출 가능성을 프랑스 생나제르 지방에서 집중 모색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
| | 유망국가 | 독일, 중국, 영국 등 | | |
| | 품목2 | HS Code | 850760 | 수입 관세율(%) |
| | 수입액('14/US\$백만) | 345 | 대한수입액('14/US\$백만) | 75 |
| 리튬이온축전지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의존도가 높은 품목 ○정부의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자전거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 큰 폭 증가 전망 | | |
| | 시장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는 자동차 CO₂ 배출량 규제에 친환경자동차 구매 권장 ○디젤 엔진차 구매율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전기차 구매율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임. | | |
| | 경쟁동향 | ○주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생산한 축전지가 프랑스 시장 내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對중국수입증감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 |
| | 진출방안 | ○수입이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외부 의존도가 높고 한국 제품 인지도가 높은 품목으로 향후 수출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됨. | | |
| | 유망국가 | 독일, 일본, 미국 등 | | |
| | 품목3 | HS Code | 3902 | 수입 관세율(%) |
| | 수입액('14/US\$백만) | 1,411 | 대한수입액('14/US\$백만) | 24 |
| 합성수지 | 선정사유 | ○합성수지는 자동차, 건설자재 등에 쓰이는 품목으로 특히, 폴리이소부틸렌(부틸고무, HS390220)의 경우 타이어, 튜브 등 자동차용 부품에서 사용되는 합성수지로 100% 수입으로 의존, '14년 對한국수입액은 전년대비 76% 증가 | | |

| | | | | |
|-------|-----------------|---|-------------------|----------|
| | 경쟁동향 | ○ 주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등 주변 유럽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플리아소부틸렌의 경우 상위 6위까지 유럽국, 7위는 한국임 | | |
| | 진출방안 | ○ 합성수지는 자동차, 항공, 건축재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한 품목이므로 가격경쟁력 및 우수한 품질을 바탕 으로 프랑스 진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 | | |
| | 유망국가 | 독일, 벨기에, 대만, 일본 등 | | |
| 품목4 | HS Code | 870829,870850 | 수입관세율(%) | 0 |
| 자동차부품 | 수입액('14/US\$백만) | 1,866 | 對한수입액('14/US\$백만) | 10 |
| | 선정사유 | ○ 주요 자동차제조사들의 글로벌 소싱 확대로 가격경쟁력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기업의 진출기회 마련 가능 | | |
| | 시장동향 | ○ 전반적인 소비침체에도 불구하고 연 1.5%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AS부품 시장이 전체 부품 수요 증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자동차부품 총 매출의 85%가 OEM용, 나머지 15%는 AS용으로 나타남. | | |
| | 경쟁동향 | ○ EU역내 거래가 수입의 80%로 높은 비중 차지 | | |
| | 진출방안 | ○ 유럽의 자동차 생산 증가 및 경제제재가 부분적으로 해제될 이란을 위시한 신흥국으로 수출할 자동차 조립용 키트(KIT)와 같은 OEM부품 판매 회복세로 자동차부품 수요 꾸준히 증가할 전망 | | |
| | 유망국가 | 중국, 일본, 미국 등 | | |
| | 품목5 | HS Code | 3004 | 수입관세율(%) |
| 의약품 | 수입액('14/US\$백만) | 15,170 | 對한수입액('14/US\$백만) | 1 |
| | 선정사유 | '15년 9월기준 對한수입액 21백만불로 전년 동월 대비 4,400%증가, 특히 제네릭, 코스메틱 의약품 시장의 진출 유망 | | |
| | 시장동향 | ○ 프랑스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약 530억 유로, 이 중 제네릭 의약품은 34억 유로 규모 ○ 최근 제네릭 의약품의 급격한 성장세와 더불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관심 증대 ○ 고령화시대와 함께 안티에이징관련 코스메틱 의약품 수요 증가 | | |
| | 경쟁동향 | ○ 중국 및 인도산 의약품 수입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인도산 제네릭 의약품 판매중단('15년 8월 21일부터) 에 따른 틈새시장 수출 증가 예상 | | |
| | 진출방안 | ○ 유럽 주요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어 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출전략 요구 및 국내 제약사들의 시설투자를 통한 유럽수출조건 갖춰야할 것으로 판단 | | |
| | 유망국가 | 인도, 중국, 미국 등 | | |

□ 소비재시장 진출지원

- 2016년 파리 춘/추계 직물전시회(Texworld Paris 2016)
 - 개최기간/장소 : (춘계) '16.2월, (추계) '16.9월 (장소) Bourget 전시장
 - 개최면적 : 33,003s/m, 800여개 사 참가
 - 전시품목 : 섬유, 기능성 섬유, 악세서리, 섬유기계, 의류 등
 - 주최기관 : Messe Frankfurt France
 - 한국관 규모 : 300m²
 - 참가기업 수 : 25여개 사
 - 참가연혁 : 1999년 최초참가 이후 2015년까지 총 17회 참가

- 2016년 파리광학전시회(Silmo 2016)
 - 개최기간/장소 : '16.9 예정/ (장소) Villepinte 전시장
 - 개최면적 : 80,000s/m, 40여개 국 800여개 기업 참가
 - 전시품목 : 안경테, 렌즈, 클리너, 악세서리, 망원경 등
 - 주최기관 : COMEXPOSIUM
 - 한국관 규모 : 400m²
 - 참가기업 수 : 25여개 사
 - 참가연혁 : 2004년 최초참가 이후 2015년 총 12회 참가

- 2016년 파리 춘/추계 캐주얼 패션 전시회(Who's Next 2016)
 - 개최기간/장소 : (춘계)'16.1월 (추계)'16.9/장소 Porte de versailles 전시장
 - 개최면적 : 70,000s/m, 20~30여개사 참가, 약 40,000~50,000여명 참관
 - 전시품목 : 남·여성복 및 캐주얼의류, 패션악세서리 등
 - 주최기관 : WSN Developpement
 - 한국관 규모 : 100m²
 - 참가기업 수 : 10여개 사
 - 참가연혁 : 2007년 최초참가 이후 2015년 총 9회 참가

- 한-불 비즈니스 파트너쉽 종합상담회(잠정)
 - 개최기간/장소 : 2016년 상반기 중/파리

- 주요내용 : 한불수교 130주년 공식행사 연계 상담회
- 참가기업 수 : 국내 및 프랑스기업 약 100개 사
- * 자세한 규모, 시기 및 내용은 추후확정

□ 문화컨텐츠 시장 진출지원

- 안시 애니메이션마켓(MIFA 2016) 연계 전시상담회
 - 개최기간/장소 : '16. 6.16~18/프랑스 안시(Annecy)
 - 주요내용 : 안시 애니메이션마켓에 참가하는 국내 10개 애니메이션사의 유럽 주요 방송사와 공동제작, 납품 상담지원
 - 기대성과 : 경제 한류 플랫폼 지식서비스산업 수출 모델 발굴

<작성자>

| 연번 | 작성자 | 직책 | 소속 | Tel | Email |
|----|-----|----|--------|--------------|-----------------------|
| 1 | 윤하림 | 과장 | 파리무역관 | 33-5535-8883 | halimyoon@kotra.or.kr |
| 2 | 안 령 | 사원 | 본사 구미팀 | 02-3460-7592 | ryeong.an@kotra.or.kr |

/끝/